

‘오뚜기’ 박찬호도 쓰러졌다...KIA 멀어진 가을야구



‘오뚜기’ 박찬호가 쓰러졌다. ‘호랑이 군단’의 가을야구도 멀어졌다.

갈 길 바쁜 KIA 타이거즈에 또 다른 부상 악재가 발생했다. 올 시즌 KIA 내야의 핵심이자 공격 선봉장이었던 박찬호가 왼쪽 척골 분쇄 골절 부상을 당했다.

박찬호는 지난 4일 KT위즈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5회 1사에서 세 번째 타석에 섰고, 상대 선발 이선우의 공에 왼쪽 손목을 맞고 교체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한 박찬호는 척골 분쇄 골절 소견을 받았다. 5일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진행된 재검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박찬호는 6일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핀 고정술을 받는다. 재활에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KIA 팬들에게는 우울한 가을이다.

박찬호에 앞서 ‘타격의 핵’ 나성범과 ‘해결사’ 최형우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나성범은 9월 19일 LG와의 홈경기에서 1점으로 뒤지고 있던 팀의 승리를 위해 우익수 플라이때 2루에서 3루를 가다가 주저앉았다. 이어 햄스트링 파열 진단을 받으면서 나성범의 2023시즌이 부상으로 시작해 부상으로 끝났다.

중야리 부상으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하기도 한 나성범은 58경기에서 18개의 홈런을 쏟아내면서 KIA의 파괴력을 더해줬다. 하지만 어려운 팀 상황에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다.

나성범이 빠진 타선을 굳게 지키던 최형우도 9월 24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왼쪽 쇄골 분쇄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했던 ‘최고참’은 1루수 박

손카락 인대 부상에도 출전 투혼 KT전 사구 맞아 척골 분쇄 골절 재활 기간 12주 걸려 시즌 마감 SSG와 3게임 차 속 ‘부상 악몽’

병호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9월 26일 수술대에 올랐다.

부상 투혼을 하던 박찬호마저 더 큰 부상에 결국 시즌을 마감했다.

박찬호는 9월 12일 삼성전에서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4번째 손가락 인대가 손상됐다. 회복에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던 전망에도 박찬호는 자리를 지켰다. 대수비와 대주자로 역할을 했던 박찬호는 9월 26일 NC전에서는 다시 배트를 잡았다.

어려운 팀 상황으로 부상 투혼에 나선 박찬호는 타석 복귀후 10경기에서 38타수 11안타(타율 0.289) 9득점을 만들었다.

부상에 앞서 진행됐던 더블헤더 1차전에서도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했고, 이어 연달아 안타를 기록하면서 10-2 대승을 이끌었다. 더블헤더 2차전에도 선발로 나선 박찬호는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생산해냈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 사구를 맞았다.

분쇄 골절 진단을 받은 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박찬호. 하지만 박찬호는 사구 직후 1루 베이스까지 걸어나갔다. 주루 장갑까지 챙기면서 경기를 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대주자 오선우와 교체됐다.

크고 작은 부상에도 그라운드에 올랐던 박찬호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경기에 출전했다. 강한 승부욕으로 KIA의 뜨거운 질주 전면에 섰던 박찬호지만 이번에는 그라운드로 복귀하지 못했다.

6위 KIA는 박찬호의 부상이 나온 이 경기 패배로 4일 현재 5위 SSG와 3경기 차가 됐다. 효율적인 전력 운영에 실패한 KIA는 부상 악몽만 남긴 채 쓸쓸한 가을을 보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8일 신인 10명 입단식

KIA 타이거즈의 2024신인 선수들이 8일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강릉고 투수 조대현 등 KIA 신인 10명이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가 열리는 8일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이날 선수들은 새로운 안방인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김중국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상견례를 하고, 경기 전 그라운드에 나와 팬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KIA 유니폼을 착용한 신인 선수들은 자기 소개와 함께 내년 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아기 호랑이’들은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린 뒤 시구·시포 행사가 나선다. 신인 부모들이 시구를 하고, 신인 선수들은 시포자로 공을 받는다.

한편 2024 신인 선수들은 그라운드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챔피언스필드에서 입단식을 갖는다.

최준영 대표이사와 심재학 단장을 비롯한 구단 임직원이 입단식에 참석해 신인 선수들을 맞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도선수단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이 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종합 3위 해내자” 전남선수단 전국체전 선전 다짐

도체육회, 목포서 결단식 49개 종목 1915명 출전

15년 만에 전남에서 펼쳐지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남도 선수단이 종합 3위를 목표로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체육회는 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도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응원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참가계획 보고, 개식사, 단기 수여, 격려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체육성금 기탁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선수단 명예단장 김영록 도지사는 선수단장인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에게 선수단기를 전달하며 전남 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유병진(수구-전남도체육회)과 김다은(배구-목포여상고 2년)은 선수대표 선서자로 나서 ‘안방체전’의 필승을 결의했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체전에 육상 등 총 49개 종목 1915명(선수 1319명·임원 596명)이 출전한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격 이계림(담양군청), 자전거 김하은(나주시청), 우수 김민수(전남도청), 유도 김지정(순천시청),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스위시 양연수(전남도청) 등과 아시아선수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세단뛰기 김장우(장흥군청), 복싱 임예지(화순군청), 박초롱(화순군체육회), 근대5종 서창원(전남도청) 등의 금메달이 기대된다.

육상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수시청)의 8연패, 육상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과 우수 윤용

진(전남도청)의 5연패도 예상하고 있다. 단체종목에서도 목포시청 하키팀과 한국전력공사 럭비팀이 2연패에 도전한다.

또 국내 육상 단거리 유망주 배건울(전남체고 3년)과 이은빈(전남체고 2년), 트랙 아시아주니어 선수권 3관왕을 차지한 자전거 나운서(전남마용고 3년)와 사격 강병무(전남체고 3년), 기계체조 주니어 국가대표 나종민(전남체고 2년) 등 유망주들도 정상을 노린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15년 만에 우리 전남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만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와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파이널A 진출 확정 광주FC 안방서 전 구단 승리 노린다

8일 강원과 정규리그 최종전



광주FC가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홈팬들과 파이널A 진출 기쁨을 나눈다.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노린다.

광주가 8일 오후 3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 1 2023 33라운드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올 시즌 뜨거운 응원으로 광주의 질주에 동참한 팬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무대다.

광주는 앞선 32라운드에서 2020년 이후 두 번째 파이널 A를 확정했다. 앞서 32라운드 경기를 치른 전북현대의 패배로 파이널A를 확정된 광주는 제주전 승리로 목표 달성을 ‘자축’했다.

파이널A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홈팬들 앞에서 광주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 전 구단 상대 승리가 광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광주는 1부 1패의 전적을 기록했던 제주전에서 기다렸던 승리를 만들었다. 최종전에서 만나 강원과는 올 시즌 2무로 맞섰다.

강원의 파이널B가 확정된 만큼 파이널라운드에서 두 팀의 맞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광주의 전 구단 승리가 완성된다. 광주의 1부 리그 첫 기록이자 올 시즌 리그 첫 기록이다.

올 시즌 광주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뜨거운 질주를 이어왔다. 앞선 경기에서는 하승운이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장식하면서 광주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쉬어갔던 ‘국가대표’ 이순민이 복귀한다.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민기도 앞선 제주전에서 교체 출전해 위명업 을 했다.

중원과 측면에 힘을 더한 광주는 탄탄해진 강원 수비벽을 뚫겠다는 각오다. 강원은 최근 5경기를 모두 1실점으로 막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또 강원과의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0-0, 1-1을 기록하는 등 단 1골 밖에 넣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의 수비도 만만치 않다. 광주는 올 시즌 32경기에서 단 30골만 내주면서 최소실점 1 위 팀이다.

광주는 잔물 수비로 갈레고, 가브리엘 등 외국인 공격수와 김대원 저지러 나선다.

광주가 시원한 골잔치로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완성하고, 최종전을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휴식라운드를 보냈던 전남 드래곤즈는 안산 그리너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 사냥에 나선다.

전남은 7일 오후 4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을 상대로 K리그2 2023 3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휴식을 반납하고 안산전을 준비한 전남은 플라나와 추상훈을 앞세워 안산 골문을 조준한다. 또 임찬울, 하남, 발디비아의 플레이와 베테랑 이후권, 김수범, 조지훈으로 경기를 풀어갈 전망이다.

재중전 시간을 보낸 전남이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30일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30일
2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3관	크리에이터, 더 년 2
4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5관	크리에이터, 퍼피 구조대: 더 마이티 무버, 더 년 2
6관	30일, 거미집
9관	1947 보스톤
7관씨네극장	1947 보스톤
8관씨네극장	거미집, 극장판 영영이 탐정: 미스터리 가면~최강의 대결, 드림송2, 80일간의 세계일주

2023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 2023-10-17(화) ~ 22(일)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잔디광장
문의 : 062-613-8233

소리극 <클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